

야고보서 난해 구절 번역

— 야고보서 2:18과 4:5-6 —

신현우*

1. 시작하는 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권면하는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해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야고보서에도 번역이 난해한 구절이 여기저기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야고보서 2:18과 4:5-6이 난해하다. 그래서 왓슨(D. F. Watson)은 야고보서 2:18-19가 해석자에게 ‘매우 오래된 난제들’ (“age-old and difficult questions”)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¹⁾ 에라스무스(Erasmus)는 야고보서 4:5의 해석 작업에 ‘마차 짐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 팝케스(W. Popkes), 무(D. J. Moo), 리처드슨(K. A. Richardson)과 함께 정창욱은 야고보서 4:5를 신약성서 최고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간주하였다.³⁾

이 구절들은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번역도 어렵다. 이 난해 구절들의 의미 해석에 왜곡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해석에 토대한 번역은 독자들에게 원문과는 거리가 먼 의미를 전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난해 구절들의 의미를 문법과 용례,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에 근거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다.⁴⁾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약학 부교수. hyeonwooshin@yahoo.com.

1) Duane F. Watson, “James 2 in Light of Greco-Roman Schemes of Argumentation”, *NTS* 39 (1993), 109.

2) Craig B. Carpenter, “James 4.5 Reconsidered”, *NTS* 46 (2000), 189.

3) 정창욱, “야고보서 4장 5절의 해석”, 『총신대논총』 38 (2018), 134.

4) 국내에서는 야고보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한국어로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이

2. 야고보서 2:18의 번역

2.1. 기존 번역들의 문제

야고보서 2:18은 『개역개정』에서 다음처럼 번역되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
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
라

이 번역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소개한다. 그 사람의 주장은 자신에게 행함이 있으며, 이 행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행함 없이 입증해 보라고 도전한다. 이러한 입장은 바로 앞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한 저자 야고보의 입장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을 굳이 익명으로 소개하며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어떤 사람’의 의견이라며 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문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표준』은 이 구절을 다음처럼 번역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다루는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은 정창욱 교수의 논문 “야고보서 4장 5절의 해석”이 유일하다. 유지운,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담화 분석’”, 『성경원문연구』 41 (2017), 179-205; 김주한, 이종만, “북한어 사역(私譯) 신약 성경들(‘새누리성경’, ‘하나님의 약속: 예수후편’, ‘우리말성경’)에 대한 비교 연구: 야고보서 1장 표본 분석”, 『신약연구』 18:2 (2019), 181-222; 채영삼, “야고보서의 ‘주’(Κύριος) 칭호 사용과 기독교적 함의”, 『신약연구』 17:3 (2018), 409-447; 채영삼, “야고보서의 Τελ-어군(語群)의 사용과 ‘온전함’의 의미”, 『신약연구』 11:1 (2012), 93-130; 이준호, “야고보와 바울의 행함과 믿음: 야고보서의 상황, 배경, 본문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0:3 (2011), 653-688; 채영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21b의 신학적 중심성”, 『신약연구』 9:3 (2010), 465-515; 배종열, “야고보서 구성”, 『신약연구』 6:1 (2007), 123-146; 안진호, “야고보서와 윤리적 이원주의”, 『신약연구』 3 (2004), 213-243.

이 번역에서도 전체 발언이 어떤 사람의 발언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번역은 『개역개정』과 내용상 동일하며, 따라서 『개역개정』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개정』은 이 구절을 다음처럼 번역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서는 행동이 있소.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번역에서는 어떤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는 인용문이 18절에서 23절까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인용된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17절과 24절에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번역에서도 야고보가 왜 자신의 주장을 익명의 인물의 말로 소개하였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CEV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처럼 번역하였다.

Suppose someone disagrees and says, “It is possible to have faith without doing kind deeds.” I would answer, “Prove that you have faith without doing kind deeds, and I will prove that I have faith by doing them.”

이 번역은 어떤 사람이 주장한 말이 ‘선행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It is possible to have faith without doing kind deeds.”)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은 야고보가 이 주장을 논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의 주장의 인용은 야고보가 그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필요성이 설명된다. 인용된 주장은 야고보의 주장과 반대되기에 문맥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CEV의 번역은 그리스어 본문을 자유롭게 번역한 것이다. CEV는 $\sigma\upsilon\ \pi\acute{\iota}\sigma\tau\iota\nu\ \acute{\epsilon}\chi\epsilon\iota\varsigma\ \kappa\acute{\alpha}\gamma\omega\ \acute{\epsilon}\rho\gamma\alpha\ \acute{\epsilon}\chi\omega$ 를 “It is possible to have faith without doing kind deeds.”로 번역하였는데, 이 부분은 직역하면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된다. 이것은 CEV가 번역한 내용(행함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CEV의 번역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야고보서 2:18의 한글 번역들은 문맥에 맞지 않으며, CEV는

문맥에 맞지만 본문을 파괴한다. CEV처럼 문맥에 부합하면서, 기존의 한글 번역들처럼 원문의 모습을 보존하는 번역은 과연 불가능할까?

2.2. 새로운 번역의 제안

NTG²⁸이 채택한 야고보서 2:18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Ἄλλ’ ἐρεῖ τις· σὺ πίστιν ἔχεις, κἀγὼ ἔργα ἔχω· δείξόν μοι τὴν πίστιν σου χωρὶς τῶν ἔργων, κἀγὼ σοι δείξω ἐκ τῶν ἔργων μου τὴν πίστιν.

여기서 σὺ πίστιν ἔχεις를 CEV에서처럼 어떤 사람(야고보의 대적자)의 말의 인용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⁵⁾ ‘Ἄλλ’ ἐρεῖ τις(‘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할 것이다.’)는 신약성서와 고전 그리스어 문헌에서 반대자의 의견을 소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⁶⁾ 하지스(Z. C. Hodges)는 그러한 용례로 고린도전서 15:35; 로마서 9:19; 11:19를 언급한다.⁷⁾ 고린도전서 15:35는 ‘Ἀλλὰ ἐρεῖ τις로 시작하는데, 『개역개정』도 이것이 가상의 반대자의 질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번역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로마서 9:19도 유사하게 Ἐρεῖς μοι(‘네가 나에게 말할 것이다.’)로 시작하며 가상적인 반대자의 의견을 소개한다. 『개역개정』도 이것을 반대자의 질문을 도입하는 구로 번역하였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로마서 11:19는 ἐρεῖς(‘네가 말할 것이다.’)로 시작하는데, 『개역개정』도 이것을 반대자의 의견 도입구로 이해하고 번역한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러한 용례들을 고려하면, 야고보서 2:18에서도 ‘Ἄλλ’ ἐρεῖ τις가 반대자의 의견을 도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용되는 반대자의 발언은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35; 로마서 9:19에서 반대자의 발언은 질문으로 제공되

5) John B. Polhill, “Prejudice, Partiality, and Faith: James 2”, *Review & Expositor* 83 (1986), 400; R. E. Glaze Jr., “The Relationship of Faith to Works in James 1:22-25 and 2:14-26”, *The Theological Educator* 34 (1986), 40; Sharyn Dowd, “Faith That Works: James 2:14-26”, *Review & Expositor* 97 (2000), 197; C. Ryan Jenkins, “Faith and Works in Paul and James”, *Bibliotheca Sacra* 159 (2002), 68; Lorin L. Cranford, “An Exposition of James 2”,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29 (1986), 27도 야고보의 대적자의 견해가 소개되는 것으로 본다.

6) Zane Clark Hodges, “Light on James 2 from Textual Criticism”, *Bibliotheca Sacra* 120 (1963), 341-342.

7) Zane Clark Hodges, “Light on James 2 from Textual Criticism”, 342.

어 있다. 로마서 11:19에서 『개역개정』은 반대자의 발언을 평서문으로 간주하고 번역하였으나, 여기서도 이것을 의문문으로 볼 때, 로마서 11:20에 ‘옳다’는 바울의 대답이 있는 문맥에 부합한다. 이러한 용례들을 고려하면, 야고보서 2:18에서도 인용되는 반대자의 발언은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οὐ πίστιν ἔχετε를 ‘그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평서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용례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번역은 야고보서 2:18의 문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야고보를 반대하는 자의 의견이 야고보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2:17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며, 2:26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구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고 간주하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대자가 야고보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 야고보의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대가 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CEV에서처럼 “It is possible to have faith without doing kind deeds.”로 번역하면 반대자는 행함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문맥에 맞게 된다. 그러나 이 번역에는 ‘without doing kind deeds’를 임의로 추가하여 번역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유로운 번역을 피하고 직역하면서 이 구절의 번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방법은 인용문을 의문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의문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저술을 했을 것이므로, 이 문장이 의문문인지 아닌지는 용례와 문맥을 통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1) 야고보의 반대자가 야고보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공격한다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주장에 대한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수사의문문으로 간주하면 문맥에 부합한다. (2)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문문일 때에는 용례에도 부합한다. 고린도전서 15:35; 로마서 9:19; 11:19에서 모두 반대자의 의견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어떤 사람(또는 너)이 말할 것이다’라는 말로 도입되므로, 야고보서 2:18에 인용된 문장도 의문문일 개연성이 있다.

호트(F. J. A. Hort)도 이 문장을 ‘그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라는 의문문으로 보았다.⁸⁾ 왓슨은 이 문장을 반대자가 야고보에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기한 비판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며, 반대의 의견을 담은 의문문이 $\mu\eta$ 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⁹⁾ 그러나 반대의 의견을 담은 의문문이 항상 $\mu\eta$ 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문장이 $\mu\eta$ 로 시작

8) R. P. Martin, *James*, Word Biblical Commentary 48 (Tennessee: Thomas Nelson, 1988), 86.

9) Duane F. Watson, “James 2 in Light of Greco-Roman Schemes of Argumentation”, 109.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반대자의 진술인 경우,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야고보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수사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야고보가 믿음이 있다고 대답해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기에 이 수사의문문은 매우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야고보가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야고보는 더 이상 주장을 전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만일 야고보가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반대자는 야고보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라고 도전할 것이다.

이 질문은 행함과 믿음을 연관시키는 야고보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질문은 ‘도대체 그대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십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그대에게는 정말 행함과 무관한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까?’라는 비아냥거림을 담을 수도 있다. 야고보가 논박을 하며, 행함 없이 믿음을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고보의 논적은 행함과 무관한 믿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οὐ πίστιν ἔχεις에서 οὐ가 강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원한다. οὐ가 강조의 기능을 할 경우 이 질문은 ‘당신은 말이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소?’라고 다그치는 험악한 분위기를 내포한다.

야고보는 이러한 가상의 논적의 수사적 질문을 인용하고 이것을 논박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강화한다. 야고보의 논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어지는 문장들은 야고보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인용된 어떤 사람의 반론에 대한 야고보의 논박으로 간주하면 문맥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과연 그리스어 본문의 지지를 받는가? 이어지는 문장에는 CEV의 “I would answer”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CEV는 이어지는 문장이 야고보의 논박이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담아 이 부분을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과연 이러한 해석은 문맥만이 아니라 문법이나 용례를 통하여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문장은 καὶγώ로 시작한다. 왓슨은 이어지는 문장(‘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야고보의 반론이라고 보는 호트의 해석을 반대하며 이 문장이 καὶγώ로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지적한다.¹⁰⁾

그러나 과연 καὶγώ로 시작하는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한 반대일 수 없는가? καὶγώ는 καὶ ἔγω의 단축형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는’이라고 직

10) Ibid.

역될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된 용례는 신약성서에서 매우 많이 발견된다(눅 2:48; 11:9; 요 1:31, 33, 34; 6:54, 56; 10:38; 12:32; 14:16, 20, 21; 15:5; 17:21, 22, 26; 행 22:19; 롬 11:3; 고전 2:3; 고후 12:20; 갈 4:12; 6:14; 빌 2:28; 계 22:8). 그러나 *καὶ γὰρ*가 ‘그리고 나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반대자의 주장에 대한 논박의 시작으로서는 부적절하다.

*καὶ γὰρ*는 ‘나도’(I also)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신약성서에서 이렇게 사용된 용례도 매우 많다(마 2:8; 10:32, 33; 16:18; 18:33; 21:24; 눅 20:3; 요 5:17; 10:15, 27; 15:9; 17:18; 20:21; 행 22:13; 롬 3:7; 고전 7:8, 40; 10:33; 11:1; 16:10; 고후 2:10; 11:16, 18, 21, 22; 엡 1:15; 빌 2:19; 살전 3:5; 계 2:6, 28; 3:10, 21). ‘나도 행함을 가지고 있다.’는 문장은 문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반대자의 질문을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로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행함 없이 믿음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적을 비판하므로(18절), 야고보가 이러한 의미로 대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καὶ γὰρ*는 “나도”(I also)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καὶ γὰρ*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저 ‘나는’이라고 번역하면 된다(고전 2:1; 3:1). 이것은 *καί*가 담화 표지로서 단락을 시작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¹¹⁾ 그런데 이러한 용법은 야고보가 새로운 단락을 도입하지 않고 논적의 질문에 대답하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καὶ γὰρ 이하 문장(들)을 앞 문장에 대한 논박으로 보는 해석을 지지하는 용례는 *καὶ γὰρ*가 *καὶ ἔγωγ*의 단축형으로서 ‘그러나 나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례이다. 이것은 *καί*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접속사 *וְ*처럼 사용되어 “그러나”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용법이다.¹²⁾ 요한복음 17:11의 *καὶ γὰρ*는 이러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가시는 예수와 대조됨에도 불구하고 *καὶ γὰρ*가 사용되었다.

καὶ οὐκέτι εἰμὶ ἐν τῷ κόσμῳ,
καὶ αὐτοὶ ἐν τῷ κόσμῳ εἰσίν,
καὶ γὰρ πρὸς σὲ ἔρχομαι.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11)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301-302 참조.

12) BDF, §442 참조.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이러한 용례를 고려하면, 이어지는 문장은 ‘그러나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야고보가 대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용례는 *κἀγώ*가 문맥 속에서 앞 문장에 담긴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면 내가’ 또는 ‘그래서 내가’라는 뜻을 가지는 용례에 의하여서도 지지된다. 신약성서에서 그러한 용례는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마 11:28; 26:15; 눅 19:23; 22:29; 요 6:44; 8:26; 10:28; 15:4; 20:15; 고후 6:17; 히 8:9). *κἀγώ*가 신약 그리스어에서 ‘그러면 내가’, ‘그래서 내가’로 번역될 수 있다면 *καί*가 히브리어 접속사 *ו*의 의미 영역에 포함되는 ‘그러나’의 의미로 사용되어 *κἀγώ*가 ‘그러나 내가’로 번역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야고보서 2:18의 *κἀγώ*를 이러한 용법으로 해석하면 *κἀγώ* 이하 문장은 다음처럼 번역될 수 있다.

κἀγώ ἔργα ἔχω·

δείξόν μοι τὴν πίστιν σου χωρὶς τῶν ἔργων,

κἀγώ σοι δείξω ἐκ τῶν ἔργων μου τὴν πίστιν.

그러나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 없이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가상의 논적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한 자신의 말을 CEV에서처럼 “I would answer.”라고 말하면서 도입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 야고보는 곧 바로 자신의 주장을 기록할 수 있다. *κἀγώ*를 ‘그러나 나는’이나 ‘그렇지만 나는’으로 번역하면 독자들은 이것이 앞 문장에 대한 야고보의 반박임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다.

번역본 중에도 첫 번째 *κἀγώ*를 ‘그러나 나는’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어 번역본 W95는 이것을 “maar ik”(‘그러나 나는’)으로, 영어 번역본 GWN은 ‘but I’로 번역하였다.¹³⁾ 독일어 번역본 ZUR와 ESS는 이것을 “ich aber”(‘나는 그러나’)로 번역했다. 18절의 두 번째 *κἀγώ*를 ‘그러나 나는’으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다. 독일어 번역본 SCH는 이것을 “ich aber”(‘나는 그러나’)로 번역하였다.

13) 이 논문에서 외국어 번역 성경의 약어는 독자들을 위해 편의상 <바이블웍스>(Bible Works)의 약어들을 사용하였다.

κάγω는 ‘καὶ A καὶ B’ 구문 속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요한복음 6:57은 κάγω를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κάγω와 κάκεινος는 ‘καὶ A καὶ B’ 구문으로서 ‘both A and B’의 뜻으로 쓰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도 그도 모두’라는 뜻을 가진다.

καθὼς ἀπέστειλέν με ὁ ζῶν πατήρ
κάγω ζῶ διὰ τὸν πατέρα,
 καὶ ὁ τρώγων με **κάκεινος** ζήσει δι’ ἐμέ.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통하여 살고
 나를 먹는 **그도** 나를 통하여 살 것이다.

야고보서 2:18의 κάγω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을 가진다. 여기서 κάγω의 반복은 야고보가 행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 주기까지 하겠다고 강조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ἔγω를 추가한 것은 ‘나’를 강조하는 용법이기도 하다. 위에서 κάγω를 역접으로 해석한 것에 이러한 강조를 더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행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행함 없이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주시지요.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 드리
 기도 하지요.

이러한 번역을 채택하면 야고보서 2:18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소?”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행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행함 없이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주시지요.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 드리
 기도 하지요.

3. 야고보서 4:5-6의 번역

3.1. 기존 번역들의 문제

야고보서의 다른 하나의 난해 구절은 4:5-6이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에

서 다음처럼 번역되었다.

5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를 구약성서로부터의 인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은 구약성서에 없다는 사실이 이 번역의 문제이다. 이 번역은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자기모순을 보인다. 『표준』은 다음처럼 이 구절을 번역한다.

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이 번역도 구약성서에 없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를 구약성서 말씀의 인용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개역개정』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상에 관한 진술이 자기모순적인 것도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이다.

『공동개정』은 다음처럼 이 구절들을 번역한다.

5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언한 말씀인 줄 압니까? 6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번역도 구약성서에 없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를 구약성서 구절의 인용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한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대상을 겸손한 사람으로 갑자기 제한하는 것도 문맥 속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CEV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5 Do you doubt the Scriptures that say, “God truly cares about the Spirit he has put in us”? 6 In fact, God treats us with even greater kindness, just as the Scriptures say, “God opposes everyone who is proud, but he is kind to everyone who is humble.”

이 번역 역시 구약성서에 없는 구절을 구약성서의 인용으로 간주한다. 이 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친절을 베푸신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한다. 이러한 번역에는 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성경 말씀이 문맥상 겸손한 자들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us)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 불명확하다.

3.2. 새로운 번역 제안

이러한 번역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NTG²⁸이 채택한 본문은 다음과 같다.

5 ἡ δοκεῖτε ὅτι κενῶς ἡ γραφή λέγει,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 6 μείζονα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ν; διὸ λέγει, ὁ θεὸς ὑπερψάνοις ἀντιτάσσεται, ταπεινοῖς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ν.

3.2.1. ἡ의 번역

5절은 ἡ로 시작한다. 이것은 4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을 가정하는 접속사이다. 한글 번역들은 모두 이 접속사를 생략하면서 번역하여 본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ESV 등은 이 접속사를 “Or”로 번역하여, 본문의 논리 구조를 살린다. ἡ는 접속사로 사용될 때 “만일 그렇지 않다면”을 뜻하기도 한다.¹⁴⁾ 이 경우 이 단어는 ‘만일 당신이 앞에서 진술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으로 자세하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이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야고보의 주장을 반대하는 논적의 주장을 가정하고 야고보의 논박이 시작된다.

ἡ의 이러한 용법은 다음처럼 신약성서에서 종종 발견된다.

14) BDAG, 432.

고린도전서 6:18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라!

고린도전서 6:19 ἢ(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성적 부도덕을 자행하면)

고린도전서 6:19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성적 부도덕을 멀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21 너희는 주의 잔과 악마의 잔을 함께 마시지 말라!

고린도전서 10:22 ἢ(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두 잔을 함께 마시면)

고린도전서 10:22 우리가 주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겠는가?

(= 우리가 주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악마의 잔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3:28 사람은 율법을 지킴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3:29 ἢ(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율법이 칭의의 필수 요소라면)

로마서 3:29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신가?

(=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ἢ 뒤에는 수사의문문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5에서도 ἢ 뒤에 오는 δοκεῖτε ὅτι κενῶς ἡ γραφή λέγει는 수사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문장은 ‘여러분은 성경이 헛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번역된다. 야고보는 분명히 성경이 헛말을 한다고 간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ASV 등의 역본들이 택하고 있다. ASV는 이 문장을 “think ye that the scripture speaketh in vain?”으로 번역하고, ERV는 “think ye that the scripture speaketh in vain?”으로 번역한다. 위에서 살펴본 CEV와 한글 번역들도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점은 동일하다.

3.2.2.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의 번역

이어서 나오는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은 야고보가 쓴 문장이며 구약성서 구절이 아니다. 구약성서에 이런 구절은 없기 때문이다.¹⁵⁾ 야고보는 이 서신의 다른 곳에서 구약을 인용할 경우 명확

15) William L. Blevins, “A Call to Repent, Love Others, and Remember God: James 4”, *Review & Expositor* 83 (1986), 422; J. William Johnston, “James 4:5 and the Jealous Spirit”, *Bibliotheca Sacra* 170 (2013), 347도 이 문장이 구약성서에 없음을 파악하였다.

하게 인용하므로, 이렇게 애매하게 인용하였을 리가 없다.¹⁶⁾ 존스톤(J. W. Johnston)은 신약성서에서 ἡ γραφή λέγει(‘성경이 말한다’)가 사용될 때에는 직접 인용을 한다는 다비즈(P. Davids)의 관찰을 소개한다.¹⁷⁾ 이러한 인용 방식을 고려할 때, 야고보서 4:5에서 구약성서의 내용이 인용되지 않고 단지 화용(인유, allusion)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야고보가 인용하는 구약성서 구절은 6절에 가서야 등장한다.¹⁸⁾ ‘성경이 헛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성경을 인용하는 형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말 후에 곧 이어 등장하는 말이 구약성서에 없는 구절임에도 구약성서를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간주할 필요가 없다. 이어서 등장하는 말이 구약성서를 인용한 구절이 아니라면, 이 문장을 문맥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장(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은 평서문이 아니라 수사이문문으로 볼 때 문맥에 맞는다.¹⁹⁾ 6절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또는 성령)께서²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평서문이면 성령(또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하는 자를 연모하신다는 뜻이 되어 서로 충돌한다. 더구나 이 문장에 등장한 φθόνος는 신약성서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므로,²¹⁾ 하나님(또는 성령)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수사이문문이라면 성령(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짝하는 교만한 자를 연모하실 리 없다는 뜻이 되어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된 성령이 (세상과 친구가 된 우리를) 질투하시며 연모하시겠습니까?’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τὸ πνεῦμα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²⁾ 프록터(L. J. Prockter)도 이 문장의 주어 를 그렇게 본다.²³⁾ 이러한 해석은,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을 의문문으로 처리하면서 이것을 구약성서 구절이 아닌 것으로 본 몇몇 역본에 이미 담겨 있다. ASV는 이 부분을 “Doth the spirit

16) J. William Johnston, “James 4:5 and the Jealous Spirit”, 347-348 참조.

17) Ibid., 349.

18) Ibid., 359.

19) Ibid., 345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해석한 경우로 Sophie Law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Harper’s New Testament Commentar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167을 언급한다.

20) ‘그 영’을 인간의 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영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으로 장황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다. 자세한 논증은 아래 참조.

21) 정창욱, “야고보서 4장 5절의 해석”, 142-143.

22) KJV, NIV, NET 등도 그렇게 간주한다.

23) Lewis J. Prockter, “James 4.4-6: Midrash on Noah”, *NTS* 35 (1989), 625.

which he made to dwell in us long unto envying?”로 번역하고, DBY는 “Does the Spirit which has taken his abode in us desire enviously?”라고 번역한다. ERV는 “Doth the spirit which he made to dwell in us long unto envying?”로 번역하고, ROT는 “Is it, for envying, that the spirit which hath taken an abode within us doth crave?”로 번역한다. 독일어 번역본들 중에도 이 부분을 구약 성서 인용이 아닌 야고보의 질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다. ELO는 “Begehrt der Geist, der in uns wohnt, mit Neid?”로 번역한다.

그런데 카펜터(C. B. Carpenter)는, 주어-동사-목적어가 일반적인 어순이므로 하나님은 주어이고 τὸ πνεῦμα는 목적어라고 주장한다.²⁴⁾ 그러나 신약 성서는 유대인들이 기록한 결과로 히브리어적인 어순인 동사-주어-목적어가 일반적이며, 야고보서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야고보서 1장만 살펴봐도 발견할 수 있다. 야고보서 1:7의 μὴ γὰρ οἰέσθω ὁ ἄνθρωπος ἐκεῖνος에서 주어 ὁ ἄνθρωπος는 동사 οἰέσθω뒤에 나온다. 야고보서 1:9의 Καυχάσθω δὲ ὁ ἀδελφὸς ὁ ταπεινὸς에서도 주어 ὁ ἀδελφὸς는 동사 καυχάσθω 뒤에 등장한다. 야고보서 1:11의 ἀνέτειλεν γὰρ ὁ ἥλιος에서도 주어 ὁ ἥλιος는 동사 ἀνέτειλεν 뒤에 나온다. 야고보서 1:13의 πειράζει δὲ αὐτὸς οὐδένα에서도 주어 αὐτός는 동사 πειράζει 뒤에 나온다. 야고보서 1:19의 ἔστω δὲ πᾶς ἄνθρωπος에서도 주어 ἄνθρωπος는 동사 ἔστω 뒤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어순을 기준으로 τὸ πνεῦμα가 목적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어가 종종 동사 뒤에 오는 야고보서의 어순을 기준으로 볼 때 τὸ πνεῦμα는 얼마든지 주어일 수 있다.

카펜터는 야고보서 4:6의 δίδωσιν의 주어도 하나님이라고 전제하고 4:5에서 ἐπιποθεῖ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²⁵⁾ 그러나 야고보서 4:6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6의 δίδωσιν의 주어는 4:5의 ἐπιποθεῖ의 주어와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만일 4:5에서 주어가 τὸ πνεῦμα이면 4:6에서도 주어는 τὸ πνεῦμα가 된다.

물론 τὸ πνεῦμα가 목적어이고 하나님이 ἐπιποθεῖ의 숨은 주어일 가능성은 있다. 바로 앞 4절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이 이미 언급되었기에 5절에서도 주어인 하나님을 명시하지 않고 생략하였을 수 있다.²⁶⁾ 우리는 유사한 용례를 야고보서 4:8에서 볼 수 있다. ἐγγίσατε τῷ θεῷ καὶ ἐγγιεῖ ὑμῖν(‘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

24) Craig B. Carpenter, “James 4.5 Reconsidered”, 193.

25) Ibid.

26) 정창욱, “야고보서 4장 5절의 해석”, 140.

끼이 할 것이다.)에서 ἐγγιεῖ의 주어는 바로 앞 문장에 목적어로 등장한 명사인 ‘하나님’이다. 더구나 야고보서 4:6에서 인용된 구약성서 구절에서 주어가 하나님인 것도 ἐπιποθεῖ의 숨은 주어도 하나님일 가능성을 지원한다.

ἐπιποθεῖ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 이 동사의 목적어는 τὸ πνεῦμα이다. 신약성서의 용례 중에 이 동사(ἐπιποθέω)가 목적어를 갖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도, 이 동사 뒤에 나오는 τὸ πνεῦμα가 이 동사의 목적어일 가능성을 지원한다. 베드로전서 2:2에서 이 동사는 사람 외에도 중성형 τὸ λογικὸν ἄδολον γάλα(‘영적인 순전한 젖’)을 목적어로 가지므로, 중성형 τὸ πνεῦμα(‘그 영’)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ἐπιποθεῖ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 본 CEV와 함께 NRS는 하나님을 이 동사의 주어로 보고 번역했다(“God yearns jealously for the spirit that he has made to dwell in us”).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에는 이 문장이 난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을 하나님께서 시샘할 정도로 연모하시겠습니까?’ 이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듯하다. 이 영이 성령이라면 문맥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질투하며 연모하신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질투하며 연모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세상의 친구가 되자 그러한 관계를 질투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욱 연모하신다는 뜻이다.²⁷⁾ 그런데, 우리를 연모하신다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그 영’을 연모하신다고 할까? 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 영이라고 장황하게 표현할까?

이러한 문제점은 ‘그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게 하고, 또한 ‘그 영’을 이 문장의 주어로 보는 쪽을 선택하도록 한다. 디모데후서 1:14의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τοῦ ἐνοικοῦντος ἐν ἡμῖν(‘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8:11의 διὰ τοῦ ἐνοικοῦντος αὐ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ν ὑμῖν(‘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라는 용례는 이러한 선택을 지지한다.

카펜터는 야고보서 4:5의 κατώκισεν의 주어도 하나님이라고 전제하며 이것도 4:5에서 하나님이 숨은 주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²⁸⁾ 그러나 κατώκισεν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4:5에서 ἐπιποθεῖ의 주어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7) Ibid., 141. 정창욱 교수는 τὸ πνεῦμα를 목적어로 볼 경우, 이 문장은 “하나님의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고 본다.

28) Craig B. Carpenter, “James 4.5 Reconsidered”, 193.

만일 성령이 ἐπιποθεῖ의 주어라면, ἐπιποθεῖ의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으며, 이것은 성령의 연모의 대상으로 상정되고 있는 (세상과 친구가 된) ‘우리’라고 볼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거나(고후 9:14; 빌 1:8; 2:26), ‘사람을 봄’을 목적어구로 취한다(롬 1:11; 살전 3:6; 딤후 1:4). 그러므로 이 단어는 여기서도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목적어인 경우 이 문장에 ‘우리 안에’(ἐν ἡμῖν)가 나오므로 ‘우리’가 목적어라고 볼 수 있다.

3.2.3. μείζονα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ν의 번역

μείζονα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ν은 수사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문장은 ‘그런데 그가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세상과 짝하는 자에게 주실 리 없다는 야고보의 주장을 수사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한글 번역들과 CEV는 이 부분을 평서문으로 번역함으로써, 본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상에 관하여 마치 세상과 짝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듯이 말하다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자기모순적인 진술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처리하는 NTG²⁸의 표점과도 일치한다. NTG²⁸은 문장 끝에 그리스어 의문부호(;)를 찍어서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간주한다. 역본들 중에는 네덜란드어 번역본 LEI가 이 부분을 의문문으로 간주하여 “maar Hij geeft des te groter genade?”라고 번역하고, 독일어 번역본 LUT(1984)도 그렇게 하여 “und gibt umso reichlicher Gnade?”로 번역한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는 질문이 된다. 이러한 수사적 질문 속에 야고보는 그럴 리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담는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성서를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잠언 3:34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구약성서 말씀이 틀릴 수가 없으므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한다는 4절의 권면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논증이다.

3.2.4. 소결

야고보서 4:5-6을 위와 같이 해석하면, 이 구절들은 다음처럼 번역될 수

있다.

5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의 친구가 되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헛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세상과 친구가 된 우리를) 질투하며 연모하시겠습니까?

6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도)

성령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구절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야고보서 4:4의 가르침을 강화하는 논증을 담고 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고 가상의 논적이 반론을 한다고 가정하고 4:5는 시작한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러한 논적의 주장은 구약성서와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야고보는 그 성경 구절(잠언 3:34)을 인용하기 전에 수사학의 문법들로 논적의 생각을 비판한다. ‘성령이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을 질투하며 연모하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는가?’ 마침내 야고보는 잠언 3:34를 인용하며 가상의 논적의 의견에 대한 논박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 구절들 ()에 담은 보충 설명을 좀 더 줄여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5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헛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세상과 친구가 된 우리를) 질투하며 연모하시겠습니까?

6 그런데도 성령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4. 맺음말

야고보서 2:18은 가상의 논적의 말을 인용하는 ‘Ἄλλ’ ἐρεῖ τις τοὺ πῖστιν

ἔχεις를 인용한다. 인용된 주장은 의문문이다. 고린도전서 15:35; 로마서 9:19; 로마서 11:19에서 가상의 논적의 말은 모두 의문문으로 되어 있기에, 야고보서 2:18에서도 인용된 논적의 말은 의문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의문문은 야고보에게 순수한 믿음이 없다는 주장을 담을 수 있고, 야고보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것을 입증해 보라는 암시도 담을 수 있다. 강조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σύ의 존재는 ‘당신은 말시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소?’라는 날카로운 공격의 뉘앙스를 더한다.

야고보의 논박은 κἀγώ로 시작된다. 이것은 요한복음 17:11에서처럼 ‘그러나 나는’의 의미로 사용되어 인용된 문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도입할 수 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에게는 행함이 있다고 대답하며, 자신은 행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겠다고 한다.

κἀγώ의 반복은 καί의 반복을 통하여 ‘both A and B’ 구문을 형성하며, ἔγω의 반복은 논적이 사용한 ‘σύ’(너)에 대응하여 ‘나’를 거듭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야고보서 2:18을 번역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시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소?”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행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행함 없이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 드리기도 하지요.

야고보서 4:5를 시작하는 ἥ는 고린도전서 6:19; 10:21; 로마서 3:29의 경우처럼, 저자의 주장을 반대하는 논적의 입장(세상과 친구가 되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 용례들에서 ἥ 뒤에 수사의문문이 등장하듯이, 야고보서 4:5에서도 수사의문문(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도 야고보의 수사의문문으로서 가상의 논적의 주장에 대한 논박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본다면 φθόνος가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된 신약성서의 용례를 고려할 때, 하나님이나 성령을 주어로 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이 문장을 수사의문문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신약성서에서 ἡ γραφή λέγει는 항상 구약성서의 직접 인용을 도입한다. 구약성서 구절(잠 3:34)의 인용은 논적을 비판하는 수사의문문들 후에 6절

에서 등장한다.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에서 주어는 τὸ πνεῦμα인 듯하다. ‘하나님’이 숨은 주어이고 τὸ πνεῦμα가 목적어이면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 영’(인간의 영)을 질투하며 연모하시겠는가를 질문하는 수사어문문이다. 이 경우 야고보가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이라고 표현했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을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한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τὸ πνεῦμα가 주어이고 디모데후서 1:14(“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11(“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에서처럼 성령을 가리킨다면 이 문장은 ‘성령께서 세상과 친구 된 사람을 질투하며 연모하시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사어문문으로서 문맥에 부합한다.

이어지는 μείζονα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ς도 수사어문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세상과 친구가 된 자들에게) 주시겠습니까?’를 뜻하게 되어 논적의 의견을 비판하는 문맥에 부합한다.

이러한 해석은 야고보서 4:5-6을 다음처럼 번역할 수 있게 한다.

- 5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헛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세상과 친구가 된 우리
를) 질투하며 연모하시겠습니까?
- 6 그런데도 성령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제어>(Keywords)

야고보서 2:18, 야고보서 4:5, 번역, 수사어문문, 주해.

James 2:18, James 4:5, translation, rhetorical question, exegesis.

(투고 일자: 2020년 7월 19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9월 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주환, 이종만, “북한어 사역(私譯) 신약 성경들(‘새누리성경’, ‘하나님의 약속: 예수후편’, ‘우리말성경’)에 대한 비교 연구: 야고보서 1장 표본 분석”, 「신약연구」 18:2 (2019), 181-222.
- 배종열, “야고보서 구성”, 「신약연구」 6:1 (2007), 123-146.
- 안진호, “야고보서와 윤리적 이원주의”, 「신약연구」 3 (2004), 213-243.
- 유지운,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담화 분석’”, 「성경원문연구」 41 (2017), 179-205.
- 이준호, “야고보와 바울의 행함과 믿음: 야고보서의 상황, 배경, 본문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0:3 (2011), 653-688.
- 정창욱, “야고보서 4장 5절의 해석”, 「총신대논총」 38 (2018), 133-152.
- 채영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21b의 신학적 중심성”, 「신약연구」 9:3 (2010), 465-515.
- 채영삼, “야고보서의 ‘주’(Κύριος) 칭호 사용과 기독교론적 함의”, 「신약연구」 17:3 (2018), 409-447.
- 채영삼, “야고보서의 Τελ-어군(語群)의 사용과 ‘온전함’의 의미”, 「신약연구」 11:1 (2012), 93-130.
- Bauer, W., Danker, F. W., Arndt, W. F., and Gingrich, F.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rederick William Danker,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DAG)
- Blass, F. and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obert W. Funk, ed. and tra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1). (= BDF)
- Blevins, W. L., “A Call to Repent, Love Others, and Remember God: James 4”, *Review & Expositor* 83 (1986), 419-426.
- Carpenter, C. B., “James 4.5 Reconsidered”, *NTS* 46 (2000), 189-205.
- Cranford L. L., “An Exposition of James 2”,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29 (1986), 19-30.
- Dowd, S., “Faith That Works: James 2:14-26”, *Review & Expositor* 97 (2000), 195-205.
- Glaze Jr., R. E., “The Relationship of Faith to Works in James 1:22-25 and 2:14-26”, *The Theological Educator* 34 (1986), 35-42.
- Hodges, Z. C., “Light on James 2 from Textual Criticism”, *Bibliotheca Sacra* 120 (1963), 341-350.
- Johnston, J. W., “James 4:5 and the Jealous Spirit”, *Bibliotheca Sacra* 170 (2013),

344-360.

Jenkins, C. R., "Faith and Works in Paul and James", *Bibliotheca Sacra* 159 (2002), 62-78.

Martin, R. P., *James*, Word Biblical Commentary 48, Tennessee: Thomas Nelson, 1988.

Polhill, J. B., "Prejudice, Partiality, and Faith: James 2", *Review & Expositor* 83 (1986), 395-404.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Prockter, L. J., "James 4.4-6: Midrash on Noah", *NTS* 35 (1989), 625-627.

Watson, D. F., "James 2 in Light of Greco-Roman Schemes of Argumentation", *NTS* 39 (1993), 94-121.

<Abstract>

Translation of James 2:18 and 4:5-6

Hyeon Woo Shin
(Chongshin University)

James 2:18 quotes a saying (σὺ πίστιν ἔχεις) of an opponent with the phrase *But someone will say* ('Ἄλλ' ἐρεῖ τις). As in 1 Corinthians 15:35; Romans 9:19; and 11:19, the opponent's saying may be a question: "Do you have faith?"

The counter-argument of James begins with *καὶ γὰρ*, which can mean *but I* as in John 17:11. James says that he has works which prove his faith.

The repetition of *kavgw*, makes the construction of *both A and B*, and the use of *ἐγὼ* (I) makes an emphasis in contrast to *σύ* (you).

These considerations lead us to translate James 2:18 as follows:

Someone, however, will say.

"As for you, do you have faith?"

As for me, however, I have works.

Show me your faith without works.

As for me, however, I will show you faith with my works.

James 4:5 begins with *ἢ* (otherwise), which supposes an opposition of an opponent (who claims that a friend of the world does not become God's enemy) as in 1 Corinthians 6:19; 10:21; and Romans 3:29. In these passages, rhetorical questions seem to follow *ἢ*. Accordingly, *πρὸς φθόνον ἐπιποθεῖ τὸ πνεῦμα ὃ κατώκισεν ἐν ἡμῖν* may also be a rhetorical question of James. In this sentence, *τὸ πνεῦμα* ('the spirit') whom God has made to dwell in us may refer to the Holy Spirit as in 1 Timothy 1:14 and Romans 8:11. If God is the subject, *τὸ πνεῦμα* (which God made to dwell in us) refers to the human spirit of those who became friends of the world. Such an interpretation, however, does not fit with 1 Timothy 1:14 and Romans 8:11 where the Holy Spirit is described as dwelling in us.

μείζονα δὲ δίδωσιν χάριν also seems to be a rhetorical question. "Does God, however, give (the friends of the world) more grace?"

These considerations enable us to translate James 4:5-6 as follows:

5 Otherwise, do you think that the Scripture says in vain?

Does the Spirit whom God made dwell in us desire (us who have become the friends of the world) jealously?

6 Does the Spirit, however, give (us) more grace?

Therefore, the Scripture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